

## 일본군 ‘위안부들(Comfort Girls)’

월터 런들 기자

유나이티드 프레스(United Press Correspondent)

살원 전선 - (지연) - 살원 전선의 일본요새를 소탕중인 중국 군은 최근 10명의 일본인 및 한국인 여성을 생포했다. 이들은 일본군인들과 함께 3개월 동안 지속되어 승산을 거의 초토화 시킨 포격과 전투와 위험할 정도로 가까이 지냈다.

일본은 살원 전선의 성산 전진요새 및 다른 주요 요새에 여성들을 공급했다. 중국군과 함께 작전 중이던 미 연락장교들은 일본인의 무자비함의 증거를 처음 목격했을 때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텅충 부근에서 이들은 근처에서 발생한 폭탄 폭발로 일본군 탄약에 생매장된 한 한국 소녀를 발견했다.

만주에서 피신한 뒤 미국인들을 돕고 있는 일본어를 하는 중국인 학생의 도움으로 성산에서 만난 불쌍한 여성들 중 5명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이들 중 4명은 농촌출신 한국 여성으로 나이는 24세에서 27세 가량이었다. 이들은 서구식의 면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이들은 싱가포르에서 이 옷을 샀다고 말했다.

여군이 아닌 민간인

이들은 낮은 의자에 앉아 미국산 담배를 피워대며 수개월 동안의 폭격과 탄약소리에 의한 충격에서부터 점차 긴장을 풀기 시작했다. 이들은 1942년 봄 일본 군속이 자신들의 고향인 한국, 평양에 도착했다고 말했다. 선전 포스터와 연설을 통해 여군모집 캠페인을 시작했으며 이들 한국인 여성들은 후방에서 일본군의 숙소관리, 위문활동, 간호보조 등과 같은 비전투적인 일을 위해 싱가포르에 보내질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이들 중 한 명은 농부인 아버지의 다친 무릎을 치료하기 위해 모집에 응하면서 받은 미화 12달러 상당의 돈을 아버지께 드려 진료비에 쓰도록 했다고 한다.

1942년 6월 이러한 여성들 18명이 항해를 시작했다. 오는 길에 이들은 일본의 승전보와 동남아시아에 새로운 왕국을 건설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 이들은 처음에 싱가포르로 직접 향하는 배를 탔다가 랑군에서 북쪽으로 향하는 기차에 올랐을 때 자신들의 운명에 대해 알게 되어 처음으로 걱정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포주 (The Madame)

이들이 살원 전선의 성산에 도착했을 때, 이 4명은 다섯 번째 여성의 관리하에 놓였다. 이 여성은 35세의 일본 매춘부로 일본군 소탕 시에 같이 생포되었다.

성산에는 총 24명의 여성들이 있었다. 이들은 다른 임무 외에도 일본군인의 옷을 세탁하고, 요리하며, 거주하고 있던 동굴을 청소하는 등의 임무도 처리해야 했지만 급여도 없었고 가족으로부터 우편물도 전혀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중국 군이 송산을 공격했을 때 이 여성들은 지하 동굴 속에서 살고 있었다. 이들 24명 중 14명은 포격으로 사망했다. 이들은 중국 군에게 잡히면 고문당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고 이 얘기를 사실로 믿었다고 했다.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실명을 공개하기 꺼려했으나 과거 2년 동안 겪은 일이 일본군에 대해 과거 가졌던 순진한 믿음을 완전히 뒤바뀌 놓았다고 말했다.